

# 가구의 소유에 따른 주공간의 재구성

— 주행위영역의 분석을 중심으로 —

Re-setting up of Dwelling Space

based on the Conditions of Furniture Possession

— With relevance to analysis of dwelling-behavior territories —

趙 原 德\*  
Cho, Won Deog

##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functions of dwelling space effected by the tendency that the number of furniture in the household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functions of dwelling space were grasped on the basis of dwelling-behavior territories.

The possession of furniture was surveyed in 144 units of apartment house. Observation with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through pilot and main survey.

1) The dwelling-behavior territories of Anbang, Living Room and D.K. each were classified into 4 kinds. These territories were assorted into two categories; first, the similar territories were integrated and specific various territories formed, second, new kind dwelling spaces were required.

2) Accordingly, Anbang have to be re-setted up Anbang and storage, Living Room and D.K. re-setted up L.D.K. and Utility. In this way, it could be possible, that creative resonable space were formed for more satisfactory. Therefore relationships between furniture possession and the usage of dwelling spaces wre identified.

## 1. 서 론

주택은 인간생활을 담는 원형적(原型的) 공간으로서 이러한 주택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가구를 들 수 있다. 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의 제반요구에 따라 그 종류와 수가 달라지면서

역으로 공간 자체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한 크기가 커지면서 직접적으로 주공간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집합주택의 경우에 단독주택보다 가용면적(可用面積)에 제한을 받으므로 더욱 더 어려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가구와 주생활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가

\* 정희원, 충남대 강사, 공학박사

구의 소유정도와 점유량, 배치유형 등의 물리적인 현황 파악에 한정되어 있어서 주생활과 주공간의 대응에 관한 실제적인 주거계획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구이용에 관한 내용<sup>1)</sup>중에서 소유상황을 토대로 주행위영역<sup>2)</sup>을 파악하여 소유 가구의 증가가 주공간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서 주공간을 재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주공간의 변화방향을 규명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이론적 고찰

### 2.1 적주성(適住性 : habitability)과 가구이용

주택은 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한정하는 물리적 단위이며 주거는 물리적 요소와 함께 사회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곳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다(Broadbent, 1970). 거주자들은 주거환경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다각적인 평가를 하면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 이와 같이 주거환경에 대한 반응을 주거적응과 조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적주성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심리적 자세와 행동을 말한다(Koh, 1980). 아파트의 경우에 적주성의 척도를 외·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내부적 요인으로는 주택의 구조, 건설회사의 지명도, 경과년수, 단지 규모, 경제성 등을 들 수 있는데(전명환, 1990) 주택의 구

조 중에서 주공간에 관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간구성 요소로서 천장, 바닥, 벽, 출입구, 창문 등을 들 수 있고 공간기능 요소로서 가구의 종류 및 수, 가구의 배치상태 등을, 공간장식요소로서 색채, 형태, 재료, 조명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구가 주공간의 사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國島道子, 1985).

즉 주공간에 관한 요소 중에서 가구가 실내환경의 적정화, 곧 적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2.2 가구소유상황의 특성

가구소유상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970년대 초부터 1985년까지 약 15년간의 자료(김종인, 1971, 조성기, 1974, 이강희, 1979, 강무진, 1985)를 정리해 본 결과 수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계 가구<sup>3)</sup>와 공간점유율이 높은 입식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취미, 오락생활과 연관된 가구의 종류 및 소유정도가 높아지고 있다(그림 2 참조).

이처럼 건축계 가구와 입식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소유량이 많아짐에 따라 주공간 내에 가구의 점유면적이 커지게 되어 가구의 이용공간 및 전반적인 행위공간에 제한이 생기게 되며 또한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공동 행위와 결속에 중요한 규제요인이 되는 가구의 배치(남경숙, 1982)에서도 건축계 가구와 인체계 가구가 겹쳐서 배치되어 가구이용이 제한 되거나 통로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山本公也, 1983).

1) 가구이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소유, 점유량, 배치, 수납 등의 범주가 있다(조원덕, 1991).

2) 본 논문에서 주공간은 안방, 거실 등 건축적 의미에서의 실내공간을 의미하며 주행위영역은 각 주공간에서 가족원의 심리적·생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행위가 일어나는 일정부분을 지칭한다.

3) 본 연구에서 가구는 가동가구, 수납가구 등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가구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주공간점유율이 큰 기타 내구소비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인체공학적인 관점에서 따라 인체를 지지하는 인체계 가구(침대, 소파, 의자 등)와 물체를 지지하거나 작업을 하기 위한 준인체계 가구(화장대, 부엌작업대 등), 물건을 수납하거나 공간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계가구(장롱, 책장 등)로 분류하였다.

## 2.3 아파트에서의 주행위와 주공간 특성

아파트의 공간사용을 결정짓는 주행위패턴은 크게 개인생활, 단란·접객, 가사, 생리적 행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이웅섭, 1986)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취침, 식사, 휴식, TV시청, 취미, 가사작업, 단란, 접객, 자녀놀이, 생리/위생, 가족돌보기, 개인관리, 일반작업 등 1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이연숙, 1990). 합리적인 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실별 행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윤장섭, 1988, 이연숙, 1986). 안방에서는 취침, 갱의 및 탈의 독서 등 개인작업, 휴식 등을 설정하고 있고 거실에서는 담화, TV 시청, 독서, 음악감상, 정적인 실내게임, 어린이들의 놀이 등을 들고 있으며 부엌에서는 식사와 관련된 가사활동과 식사행위를 들고 있다(윤장섭, 1988, 이연숙, 1986).

주공간의 대표적인 실들인 안방과 거실 및 부엌을 중심으로 주공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바 실면적이 커짐에 따라 점차 침실면적에 이어 공격 공간과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대한주택공사, 1985, 이선수, 1985). 아파트의 실구성 및 면적구성비의 변화에 관하여 보더라도(백정렬, 1987) 개인생활 공간은 그 면적비가 점차 감소 하고 있고 공동생활 공간과 서비스 공간의 면적비가 증가하되 부엌 및 가사실, 욕실, 수납공간 등 서비스 공간의 면적에 관한 배려가 보다 요구되고 있다.

한편,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비해 제한된 공간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 공간 중에서도 특히 가구의 수납을 위한 공간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정규복, 1982, 김용환, 1983, 문석창, 1984, 조원덕, 1990). 서구에 비해 우리와 주생활의 양상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전체 주공간 중 수납공간 면적비율을 4인 가족에서 약 12.5%로 잡고 있는 반면(日本建築學會, 1982) 대한주택공사의 최근의 자료(대한주택공사, 1985)에서는 수납공간의 면적비율을 2.3침실형에서 1.62~4.63%로 설정하고 있는 예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거

주면적의 절대면적 확보에 치중함에 따라 수납공간이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두 단계에 걸쳐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통한 현황조사를 행하여 조사대상 실별 소유가구를 파악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 3.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현재 주생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구들의 종류를 파악하고 조사자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절한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조사상황을 유도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가구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구의 종류는 선행연구들(김오성, 1988, 김용환, 1983, 남경숙, 1982, 馬場宏子, 1986)을 기초로 하여 주공간의 점유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였다. 우선 실의 중요부분을 점유하면서 그 위치가 고정적인 장농, 장식장, 서랍장, 책장, 침대 등 대형 가구군과 위치가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파세트, 문갑, 식탁, 피아노, 냉장고 등의 큰 가구군, 그리고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선풍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등의 가구군으로 분류하였다(표 1 참조).

조사 대상은 주호형(住戶型)이 아파트로서 규모는 국민주택형 이내이고 세대원 수가 우리나라 한 세대 당 평균과 비슷하며 세대원의 사회적 배경이 서로 유사한 대전시 태평동 S아파트 23평형을 선정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주부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아파트관리사무실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 60부를 배부하고 3, 4일 후에 배부한 세대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면서 관찰하였다. 조사기간은 1989년 1월 30일에서 2월 14일에 걸쳐 시행하였다. 총 34세대의 조사결과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단순빈도

와 백분율로 하였다.

조사결과 장농, TV, 냉장고, 화장대, 장식장, 쿠션·방석, 피아노, 세탁기, 문갑 등의 소유율이 높았고 주공간의 크기에 비해 많은 가구를 소유하고 있어서 주행위면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

는데 이러한 상황은 대형가구의 증가, 서구식가구의 일반화, 가전제품의 증가, 취미·오락생활을 위한 가구의 증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구의 특징으로는 크기의 대형화와 종류의 다양화를 꼽을 수 있다.

〈표 1〉 가구 소유율—예비조사

고정식	내용	장농	서랍장	장식장	화장대	책장	책상	침대				
	f(%)	33(92)	24(71)	28(82)	31(91)	27(79)	22(65)	12(35)				
반고정식	내용	문갑	응세점트	식탁	식기장	부작용대	피아노	T·V	냉장고	세탁기	쌀통	신발장
	f(%)	22(65)	22(65)	32(94)	34(100)	34(100)	30(88)	34(100)	34(100)	30(88)	27(79)	34(100)
이동식	내용	오세디오트	선풍기	전청소공기	전밥기통	전래인자지	라디오	발상	쿠션	방석	유모차	화분
	f(%)	22(65)	31(91)	16(47)	33(97)	24(21)	28(82)	24(71)	28(82)	32(94)	12(35)	28(82)

고정식 가구군 : 실의 중요부분을 점유하는 定置的인 큰 가구군  
반고정식 가구군 : 定置的 가구를 예상해야 하는 그외 큰 가구군  
이동식 가구군 : 비교적 점유면적이 크고 이동하여 사용되는 가구군

3.2 본 조사

1)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조사내용은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였다. 설문항목은 조사대상자의 연령·학력·직업·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의 수와 종류, 놓여 있는 장소 등 가구의 소유상황에 관한 것이다.

조사가구의 항목은 예비조사에서 선정한 항목에 관찰 및 실측조사를 하면서 빠진 가구들을 보충하여 〈표 2〉에 있는 바와 같이 46가지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주생활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지역의 중류층<sup>4)</sup>으로서 가족수가 도시지역의 세

대 평균과 유사한 세대로 하며 주거유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평면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2, 3침실형<sup>5)</sup>으로서 대전직할시에 위치하고 있는 11개 전체 단지의 평면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단지 별 평면형은 태평단지의 17평형, 가장단지의 17, 22평형, 용전단지의 22평형, 탄방단지의 16, 19평형, 용운단지의 16, 19평형, 가오단지의 16, 19평형, 와동단지의 17, 20평형, 천동단지의 16평형, 연축단지의 16평형 등 전체 11개 단지의 12가지 평면형이다. 조사대상 실은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단위평면 전체의 실 배치, 실 사이의 관계, 실의 크기 등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방 및 거실과 부엌<sup>6)</sup>으로 하였다.

4) 주택소유 유무 및 소득계층, 직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즉, 자가(自家)이며 198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 606,200원 이상(동아연감, 1990)이고 가장의 직업이 단순노무자와 하위판매종사자, 하위서비스 종사자, 농업종사자, 무직자가 아닌 계층을 말한다(홍두승, 1983).

5) 1986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서 2, 3침실형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호수의 87.2%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6) 안방, 거실, 부엌이 아파트에서 가장 일반화된 실호칭이다(조성희, 1988). 여기에서 부엌은 식사영역까지 포함한 D.K.을 의미한다.

## 2)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처리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편의상, 조사대상 아파트가 속한 학교의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선생님들께 의뢰하여 조사대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 중에서 자가(自家)이면서 가족원 수가 4~5명<sup>7)</sup>인 아동에게 배부하고 주부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주호형식은 주로 3LDK형이 많았고 규모는 16평에서 22평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 되어있다. 1990년 3월 19일에서 24일에 걸쳐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유효표본 144부를 본 조사의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sup>8)</sup>

자료는 C대학교에서 SAS로 처리하였다. 연구내용 별로 사용된 자료처리 및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내용은 단순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구소유 정도와의 관계는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통한 F-test를 하였다.

셋째, 주행위영역은 QUANT3<sup>9)</sup>(田中 豊, 1984, 대한주택공사, 1988)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7) 한국도시연감(내무부, 1989년)에 의하면 1989년 도시 평균 세대원수는 4.04인이다.

8) 유효표본의 비율이 3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설문지의 설문형식을 선다형설문과 함께 자유응답식에 약간의 응답항목을 추가한 형식(free response with some classification: 차배근, 1990)을 채택했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응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 데이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개념은 인자분석과 같으나 인자분석은 정량적(定量的) 데이터를 다루는 반면 QUANT3는 정성적(定性的) 데이터를 수량화하여 취급한다. 몇개의 카테고리에 대하여(특성항목) 샘플이 어느 카테고리에 반응하는가에 따라 유사한 반응패턴을 모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를 최소차원의 공간으로 플로트하여 데이터가 지닌 구조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나타내므로 "패턴분류"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 4. 조사결과 및 논의

### 4.1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가족수, 부부의 연령, 부부의 교육수준, 월평균 수입, 가장의 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가족수는 전체 평균이 4.36인으로 전국도시의 한 세대 당 평균 4.04인과 비슷하다. 부부의 연령분포는 남편의 경우 40대가 59.7%이고 30대가 35.4%, 주부의 경우에는 30대가 72.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남편은 대졸 이상(68.9%)이 우세하고 주부는 대부분(89.1%)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월평균 수입은 60만원 이상~80만원 미만인 32.6%, 80만원 이상이 36.1%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6,200원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가장의 직업은 반숙련·단순노동·하위판매·서비스업 등 하류층을 제외한 비율이 79.9%이다. 그러므로 직업분류를 통해 계층을 구분하거나 소득에 의해 계층을 구분하더라도 본 연구 대상세대가 주생활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 중류층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가구의 소유상황

가구소유율은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축계 가구에서는 장농, 장식장, 책장, 문갑의 소유율이 높고 준인체계가구에서는 TV대, 전화대, 식탁과 의자, 책상과 의자, 차탁자의 소유율이 높으며 인체계 가구에서는 바닥깔개, 보료·방석, 2, 3인용 소파의 소유율이 높고 에너지계 가구에서는 TV, 냉장고, 전화, 오디오, 진공청소기 등의 소유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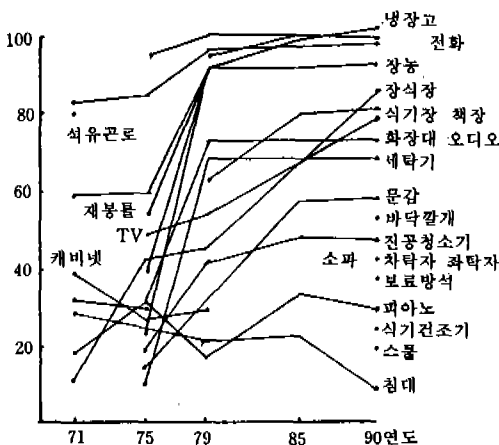
소유가구의 종류와 소유율에서 가구소유상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와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합하여 본 바 소유율이 높은 대표적인 가구들의 경우에는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구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취미에 관련된

〈표 2〉 가구소유율-본조사

가 구 종 류	항 목	f(%)	가 구 종 류	항 목	f(%)
전 축 계	장 농	140( 97.2)	인 체 계	스 를**4	15( 10.4)
	장식장, 대*1	74( 51.5)		1인용 소파	19( 13.2)
	장식장, 소*2	55( 38.3)		2,3인용 소파	49( 34.0)
	서랍장	48( 33.3)		휴식용 의자	15( 10.4)
	문갑	80( 56.0)		보료·방식	57( 39.6)
	식기장	53( 36.8)		쿠션	28( 19.4)
	벽장	112( 78.0)		바닥 깔개	86( 59.7)
	코너장	17( 11.8)			
계	신발장	28( 19.4)	에 너 지 계	T V	151(104.9)
	쌀통	78( 54.1)		냉장고	134( 93.1)
				오디오	109( 75.7)
				비디오	85(59.0)
				전화	166(115.3)
				세탁기	98( 68.1)
				건조기	11( 7.6)
				진공청소기	72( 50.0)
준 인 체 계	옷걸이	88( 61.1)	기 타	쓰레기통	82( 56.9)
	회장대, 좌	78( 54.2)		화분	76(52.8)
	화장대, 입	34( 23.6)		어항	52( 36.1)
	차탁자	61( 42.4)		장식, 그림글씨	117( 81.3)
	좌탁자*3	50( 34.7)			
	책상과 의자	73( 50.7)			
	식탁과 의자	98( 68.1)			
	부엌 작업대	144(100.0)			
	피아노	42( 29.1)			
	전화대	134( 93.1)			
T V 대	148(102.8)				
	더블 침대	11( 7.6)			
	싱글 침대	2( 1.4)			

\*1 높이가 180~200cm내의, 폭 90~120cm정도  
\*2 높이가 75cm내외이거나 폭이 60cm내외인 것

\*3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는 탁자  
\*4 등받이가 없는 의자



〈그림 1〉 소유가구의 종류 및 소유율 (1971-1990)

것과 수납용 가구 중에서는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 점차 개인 취향에 따른 개인소유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구소유의 특성으로서 복수화(複數化)의 정도가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참조).

각 세대별 평균 소유가구의 수는 조사대상 46가지 중 31.2개이며 일원변량분석을 통한 F-test로 가족원수, 부부의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항목과 가구소유의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소득수준과 가구소유의 관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P value 0.038로서 유의도  $\alpha = 0.05$ 수준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를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소득수준과 가구 소유정도의 차이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평균	F
가구이용상황	소득수준		
소유가구수	40만원 미만	14.000	2.72*
	40만원~60만원	23.828	
	60만원~80만원	28.652	
	80만원 이상	30.333	

\* 0.05수준에서 유의적임.

4.2 가구의 소유분포에 따른 주행위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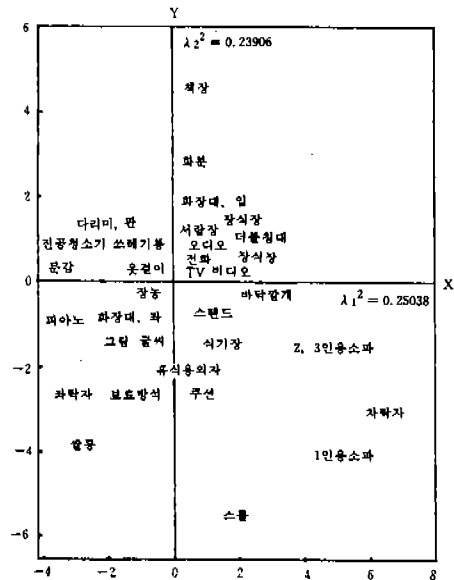
가구의 소유상황에서 주행위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46가지 전 조사대상 가구 중 각실에 있는 가구의 종류 및 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유효표본 144개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QUANT3를 이용하였다.

1) 안 방

안방에 분포되어 있는 가구들에 관하여 카테고리 35가지(총 46개 중에서 안방에 분포되어 있는 가구)의 자료를 처리한 결과 고유치<sup>10)</sup>가 너무 작은 것을 제외하고  $\lambda_1^2=0.25038$ ,  $\lambda_2^2=0.23906$  두 가지를 선정하여 2차원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는 카테고리 산포도(散布圖)이고 〈그림 3〉과 〈그림 4〉는 〈그림 2〉를 해석한 것으로서 각각 안방의 가구종류와 기거양식(起居樣式)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그림 2〉에서 중심 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가구들이 소유빈도(頻度)가 높은 가구들이므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장농이 소유분포에서 보았을 때 안방을 대표하는 가구이다. 또한 생활의 중심장소를 나타내는 중요한 영향요소인 TV(조성희, 1988)가 그래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현상은 곧 안방의 기능이 부부실로서의 기능과 함께 가족실로서의 의미 또한 크다는 것을 나타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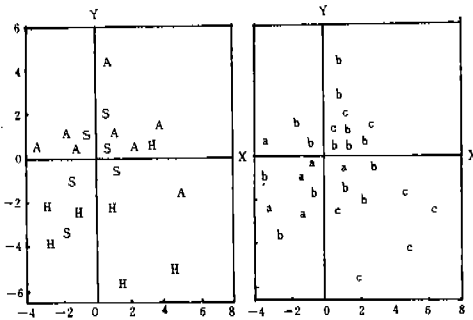
다고도 볼 수 있다.<sup>11)</sup> 한편, 그래프 X축의 +방향에는 입식용 가구들이, -방향에는 좌식용 가구들이 집중되어 있고 0점 부근에는 중간타입의 가구들이 모여 있으므로 X축은 기거양식을 분할하는 차원이며 건축계 가구들이 주로 Y축의 +방향에, 인체계 가구가 -방향에, 준인체계 가구들이 중간 부근에 모여서 크게 셋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므로 Y축은 인체공학적 관점에서 가구들을 구분하는 차원이다.



〈그림 2〉 안방가구의 카테고리 산포도

10) 고유치  $\lambda_1^2$ 는 샘플수량과 카테고리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의 제곱으로서 샘플과 카테고리와의 상관정도를 나타낸다.

11) QUANT3의 산포도에서 그래프의 중심 가까이에 위치한 것은 주로 빈도가 높은 것들이며 그래프 상에서 나타난 거리의 원근 정도가 가구들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A : 건축계 가구  
S : 준인체계 가구  
H : 인체계 가구

a : 좌식  
b : 절충식  
c : 입식

〈그림 3〉 안방가구의 가구종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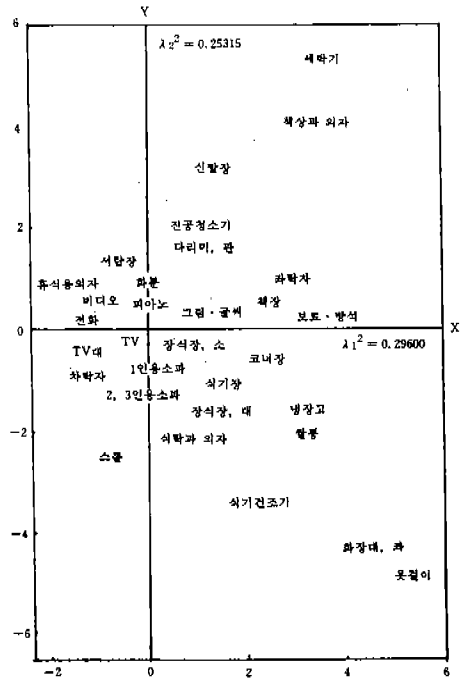
〈그림 4〉 안방가구의 기거양식별 분포

안방의 주행위영역은 1, 2상한에 모여 있는 장롱, 장식장, 서랍장 등 체적 점유율이 큰 건축계 가구들을 중심으로 수납영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4상한을 중심으로 3상한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는 1, 2, 3인용 소파, 휴식용 의자, 보료, 방석과 차탁자 등에 의해 단란영역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X, Y축 중심으로 1, 2상한에 있는 TV, 비디오, 오디오를 중심으로 오락영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2상한의 다리미와 다리미판, 진공청소기들에 의해 가사작업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부부취침영역은 더블침대사용율이 7.6%에 불과하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 2참조).

안방의 주행위영역을 실별 주행위에 관한 기준 즉, 취침, 갱의 및 탈의, 독서, 휴식 등 주로 개인 생활과 연관된 행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소유가구의 분포에 의한 주행위영역은 취침 이외에 수납, 단란, 오락, 가사작업영역 등으로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과 가사작업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다기능(多機能) 공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존의 안방이 수용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 기능을 독립시켜 새로운 공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거 실

거실에 분포되어 있는 가구, 카테고리 41가지를 처리한 결과 고유치가 너무 작은 것을 제외하고  $\lambda_1^2 = 0.29600$ ,  $\lambda_2^2 = 0.25315$  두가지를 선정하여 2차원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5〉 거실가구의 카테고리산포도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전화, TV, 오디오세트, 장식장, 2, 3인용 소파, 장식물 등이 소유빈도가 높은 가구들이다. 그 가구들을 연결해 보면 TV가 중앙에 있으므로 거실을 이루는 가구들 중에서 TV가 중심요소임을 알 수 있다. 3상한에는 1, 2, 3인용 소파와 차탁자 등 전형적인 거실용 입식 가구들이 있는 반면 1, 2상한에는 보료, 방석, 좌탁자 등 좌식가구들이 위치되어



있는 것에서 전통적인 주양식에 부합되면서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좌식가구의 이용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X, Y축 교점 부근의 1, 2상한에 있는 장식물, 그림·글씨, 화분, 어항 등에서 장식적 요소들이 거실공간을 이루는 중요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거실에 형성되어 있는 주행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3, 4상한에 모여있는 1인용소파, 2, 3인용소파, 차탁자, 스톨 등을 중심으로 단란영역이 형성되어 있고 X, Y축 교점 부근의 2상한에 분포되어 있는 TV, 비디오, 피아노 등을 중심으로 한 취미·오락영역과 3, 4상한의 장식장, 서랍장, 식기장, 코너장 등 벽에 주로 면하게 되는 가구들이 모여 있는 수납영역이 있다. 한편, 4상한에 있는 냉장고, 쌀통, 식탁과 의자, 식기장 등을 중심으로 식사영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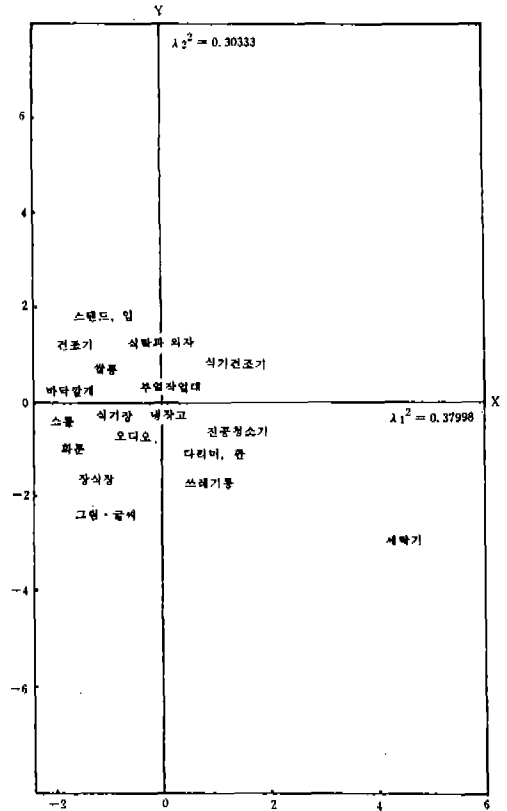
거실의 주행위영역은 단란영역, 취미·오락영역, 수납영역, 식사영역 등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실 주행위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담화, TV시청, 독서, 음악감상, 정적인 실내게임, 어린이 놀이 등의 행위와 비교해 볼 때 식사영역의 형성이 특이하다. 거실 역시 안방과 같이 가구소유의 증가 경향에 따라 다양하게 가구가 도입되어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체 주공간에서 볼 때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간이 재조정 되어야 한다.

### 3) 부 역

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가구들에 관하여 카테고리 20가지를 대상으로 처리하여  $\lambda_1^2 = 0.37998$ ,  $\lambda_2^2 = 0.30333$ 의 두가지 고유치를 선정, 2차원으로 플롯트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유빈도가 높은 가구들을 그래프상에서 연결시켜 보면 부역 작업대와 냉장고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소유가구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면서 기능이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카테고리수량과 샘플특점과의 상관성을 나타내

는 고유치  $\lambda_1^2$ 값이 다른 실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sup>12)</sup>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림 6〉 부역가구의 카테고리 산포도

부역의 주행위영역은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사와 관련된 가사행위영역과 식사영역 외에 3상한의 오디오, 장식장, 장식물, 화분 등에서 휴식영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4상한의 진풍청소기,

12) 안방  $\lambda_1^2 = 0.25038$ ,  $\lambda_2^2 = 0.23906$ , 거실  $\lambda_1^2 = 0.29600$ ,  $\lambda_2^2 = 0.25315$ ,

다리미·다리미판,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식사준비 외의 가사작업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가구의 분포로 볼 때 부엌은 비교적 다른 실들에 비해 기능이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주공간의 변용(變容) 가능성이 적은 정착된 공간이라고 해석된다.

### 4.3 주행위영역에 의한 주공간의 재구성

주공간에서 형성되는 주행위영역을 살펴 본 바 영역의 성격이 유사하여 필요가구를 통합·정리할 수 있는 것과 성격이 달라서 개별적인 주공간으로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 있다. 실별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방에는 수납영역과 단란영역, 오락영역, 가사작업영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납영역을 이루고 있는 건축계 가구들이 특히 많으므로 안방과 연결된 고정식 수납공간의 설치가 필요하다. 즉, 고정식 수납공간이 가사지역에는 다용도실, 실내창고, 발코니창고 등이 있는 반면 거주 영역에는 일반화된 수납공간이 전무한 실정이고(조원덕, 1990)<sup>13)</sup> 또한 건축계 가구들 보다 수납 효율도 높으므로<sup>14)</sup> 공간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단란영역과 오락영역은 기능이 유사하므로 영역을 통합하여 오락·단란영역과 가사작업 영역을 합하여 안방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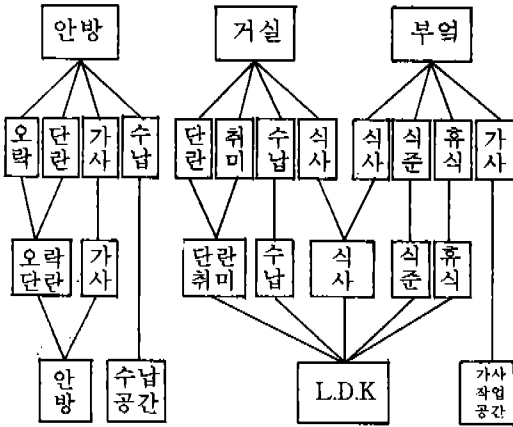
거실에는 단란영역, 취미·오락영역, 수납영역, 식사영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단란영역과 취미·오락 영역은 기능이 유사하므로 필요가구를 정리하여 영역을 통합하고 수납영역은 불박이화로 정리한다. 그리고 식사영역은 부엌에 형성되어 있는

식사준비영역, 식사영역, 휴식영역, 가사작업영역 중에서 가사작업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과 L.D.K 형으로 연계시켜서 구성한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같이 2, 3침실형으로서 거실의 크기가 330×330cm, 330×360cm, 360×390cm 정도인 가장 일반적인 평면형인 경우에는 거실을 D.K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하여 보다 개방된 L.D.K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부엌의 가사작업 영역에 세탁기가 있는 것은 1986년 이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에 세탁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용도실이나 서비스 발코니가 없는 경우에 어쩔수 없이 부엌의 구석에 놓이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진공청소기나 다리미·다리미판도 적합한 수납장소가 없이 부엌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부엌과 연결하여 세탁, 다림질, 청소용구 보관 등의 가사작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주행위영역을 파악해 본 결과 안방과 거실의 영역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실의 규모와 기능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실들인 두 실의 성격이 명확하지 못하고 중복되는 등 주행위에 따른 영역 및 주공간의 설정이 미흡하여 공간사용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안방에서 형성되고 있는 오락, 단란, 가사, 수납 등의 영역 중에서 수납영역을 고정식 수납공간으로 독립시키고 거실의 단란·취미, 수납, 식사영역과 부엌의 식사, 식사준비, 휴식영역을 L.D.K로 구성하며 부엌의 가사작업영역을 가사작업공간으로 독립시켜서 주행위영역에 적합하도록 주공간을 새롭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적공간과 서비스공간 특히 수납공간과 가사작업공간과 같은 서비스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13) 대한주택공사아파트를 모집단으로 2, 3침실형 아파트 평면 98개를 분석한 결과 침실영역의 수납공간이 특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14) 천정높이가 230cm인 침실에서 10자 장농을 놓았다고 가정할 때, 수납체적이  $300\text{cm} \times 65 \times 200 = 39,000,000\text{cm}^3$ 인 반면에 이를 천정까지 공간화하면  $300\text{cm} \times 65 \times 230 = 44,850,000\text{cm}^3$ 으로 장농에 비해 수납체적율이 약 11.3% 증가한다.



(그림 7) 주행위영역에 따른 주공간

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정해 본 결과 기존의 안방은 안방과 수납공간으로, 거실과 부엌은 L.D.K.와 가사작업공간으로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주공간의 계획이 거주자의 의도를 파악함이 없이 진행되어 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구소유상황에 의한 실증적 분석이란 점에서 주공간을 설정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구의 소유경향에 따른 주공간 설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주공간의 지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 론

가구는 주행위나 주공간을 제한하고 실내공간의 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공간기능요소이므로 주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가구를 변인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유가구의 증가와 주공간 사용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주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의 소유상황은 전반적으로 소유율이 높아지고 종류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공간 점유율이 높은 건축계 가구들의 증가폭이 커서 실내공간에서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소득 수준의 영향이 크다.

둘째, 가구분포에 따른 실행 주행위영역은 안방에는 수납, 단란, 오락, 가사작업영역이 형성되어 있고 거실에는 단란, 취미, 수납, 식사영역이 있으며 부엌에는 식사, 식사준비, 가사작업, 휴식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세째, 주행위영역의 형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

### 참 고 문 헌

1. 강무진, 주거공간의 가구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 김오성, 아파트의 가구배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3. 김용환,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4. 김종인, 가구이용면에서 본 생활공간계획, 대한건축학회지 제16권 48호, 1972.
5. 남경숙, 아파트거실 가구배치가 생활패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6.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의 설계지침연구, 1985.
7. \_\_\_\_\_, 조사·분석방법, 1988.
8. 분석창,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대림공전대논문집 6집, 1984.
9. 백정렬, 집합주택에서 실구성 및 면적구성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석사논문, 1987.
10. 윤장섭, 주거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8.

11. 이강희, 수납공간 및 가구류 배치를 고려한 주택 각실 규모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79.
12. 이연숙, 주택과 실내디자인, 경춘사, 1986.
13. \_\_\_\_\_, 주거공간 내에서의 주생활 및 행위간 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 3호, 1990. 6.
14. 이선수, 주거행위와 가구사용에 따른 아파트 실내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85.
15. 이용섭, 아파트의 공간사용규범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6. 정규복, 주공간에서 본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82.
17. 정영환, 대도시집합주택의 주거편의도와 주택 가격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90.
18. 조성기,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지 제18권 56호, 1974.
19. 조성희,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20. 조원덕, 가구의 이용에 따른 주행위영역의 구성과 공간효과, 충남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1.
21. \_\_\_\_\_, 공영아파트 수납공간의 변화추이, 대전대학교논문집 제9권 1호, 1990.
22.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3호, 1983.
23. 田中豊 外, パソコン統計解析ハンドブック (Ⅱ)多變量解析編, 東京: 共立出版株式會社, 1984.
24. 馬場宏子 外, 室内における家具の配置および量の視覺的效果に關する實驗的研究,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393號, 1988. 11.
25. 山本公也 外, 家具の置かれ方に關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327號, 1983. 5.
26. 渡邊光雄, 住空間における家具面積の分析(その5)-家具増加と住空間の變化,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400號, 1989. 6.
27. G. Broadbent, Systems and Environmental Design, Proceedings of EDRA2 Conference, 1970.
28. J. Koh, A theoretical synthesis of behavioral science and environmental design: Toward a human ecological theory of environmental structure, Proceedings of EDRA12 Conference, 1980.